

소치 감동 '스마트 녹화'로 소장하자

CJ헬로비전, 스마트 녹화 서비스 출시
타임머신·스마트폰 원격 녹화 등 기능
이용자에 500GB 외장하드 무료 제공

KT '올레tv' 소치 올림픽 스마트 중계

소치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싶다면 이제 다시보거나 녹화를 하면 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IPTV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소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다시보기(VOD) 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개인 비디오 녹화(PVR) 서비스까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주요 경기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열리는 이번 동계올림픽 시즌에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스마트 기능을 추가한 PVR 서비스 '스마트 녹화'를 5일 출시했다. 서비스 가입자들은 실시간 및 예약녹화는 물론 방송 콘텐츠 시리얼 녹화, 생방송 되감아보기가 가능한 '타임머신' 기능, 스마트폰 원격 녹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 녹화'는 CJ헬로비전의 '헬로tv 스마트'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영상녹화 저장공간은 외장하드를 택했다. 소비자들은 과거 VCR을 통해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했던 것처럼, 이제 외장하드라는 개인미디어를 통해 김연아 선수의 피겨 경기 같은 영상콘텐츠를 자유롭게 저장하고 소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CJ헬로비전은 스마트 녹화 이용자들에게 500GB의 외장하드를 무료 제공한다. 이는 풀HD급 방송 프로그램 기준 100시간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녹화 콘텐츠들은 정보 보호를 위해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이 적용돼 복제나 외부 유출을 차단했다.

이영국 CJ헬로비전 마케팅실장은 "최근 이른바 '본방사수' 시청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시청하고자 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스마트 녹화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동시에 VOD 소비도 증가하는 성향이 있어 전체 방송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CJ헬로비전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맞아 스마트 기능을 추가한 PVR 서비스 '스마트 녹화'를 5일 출시했다. 실시간 및 예약녹화와 방송 되감아보기가 가능한 '타임머신' 기능, 스마트폰 원격 녹화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 KT에서는 '올레tv 스마트 중계' 서비스를 실시한다. TV 홈 메뉴에서 나라 별 메달 현황 및 경기 소식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올림픽 관련 중계 채널이나 하이라이트 VOD로 손쉽게 관람할 수 있다. (아래)

사진제공 | CJ헬로비전·KT

고 말했다.

IPTV 사업자들은 소치 동계올림픽을 맞아 주문형비디오(VOD)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섰다.

KT는 '올레tv'에 실시간 중계와 관련 VOD를 제공하는 '올레tv 스마트 중계'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TV 홈 메뉴에서 나라 별 메달 현황 및 경기 소식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한 번 클릭으로 올림픽 관련 중계 채널이나 하이라이트 VOD로

손쉽게 연결된다. 하이라이트 VOD는 인기가 많은 'HOT이슈 영상'과 데일리 하이라이트 영상을 종목별로 마련해 놓았다.

LG유플러스는 'U+tv G'에서 실시간 중계는 물론 주요 경기를 무료 VOD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밤 경기 시청을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 소치올림픽 특별관을 신설하고, 스포츠 영화 및 동계 올림픽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영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빌 게이츠 경영 복귀 'MS 부활' 청신호

사티아 나델라 부사장 차기 CEO로 임명
빌 게이츠는 의장직서 기술고문으로 전환
신임 CEO 보필...MS 부활 지원사격 나서



빌 게이츠는 지난 2000년 말머에게 CEO 자리를 내주고 2008년에는 상근 임원직을 그만 두면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이후 자선활동 단체인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

절박한 마이크로소프트(MS)가 결국 빌 게이츠 카드(사진)를 꺼내 들었다.

MS는 4일(미국 현지시간) 스티브 발머의 후임으로 사티아 나델라 수석 부사장을 차기 최고경영자(CEO)로 임명했다. 인도 출신 나델라는 MS에서 22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 최근엔 클라우드 및 기업 담당 수석 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변화는 새 역할을 맡은 창업자 빌 게이츠다. MS는 이날 빌 게이츠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 기술고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빌 게이츠가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다. 빌 게이츠는 이날 "기업 구조를 크게 바꾸는 시점에서 나델라 만큼 지도자로 어울리는 인물은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 회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빌 게이츠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겉으로 MS와 거리를 더 둔 것으로 보이지만 신임 CEO를 보필하는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사업을 측면 지원한다는 면에서 경영 복귀를 의미한다는 시각이 많다. MS가 빌 게이츠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MS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OS에선 구글과 애플에 밀려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윈도 OS 또한 수요 감소와 가격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번 나델라 CEO와 빌 게이츠 기술고문의 만남이 MS의 수익성 악화를 잡고 MS의 부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영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효자 게임산업' 전체 콘텐츠 수출액 60% 차지

게임은 콘텐츠산업 수출의 효자.

올해 국내 게임산업의 해외 수출액이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콘텐츠산업 전망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내 콘텐츠산업은 세계경기 회복과 유럽의 재정위기 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 등에 힘입어 매출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약 7% 증가한 97조9000억원, 수출액도 약 12.8% 증가한 57억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게임의 경우 매출액은 11.2% 증가한 12조1028억원으로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된다. 수출액도 약 15.6% 증가한 34억4289만 달러로 3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게임산업 성장세 지속의 주요 요인으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의 플랫폼 이동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과 국내 대작 온라인 게임의 해외시장 진출을 꼽았다. 한편 음악과 지식정보 산업의 매출과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만화산업의 성장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근 기자

아트라스BX, CJ슈퍼6000 클래스 참가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가 후원하는 아트라스BX 레이싱팀이 2014 CJ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6000 클래스에 참가한다.

아트라스BX 레이싱팀은 조항우 감독, 김중근 선수의 투톱 체제로 올시즌 드라이버 라인업을 구성한다. 특히, 조항우 감독은 지난해 이벤프로로 참가한 슈퍼6000 클래스 6라운드 경기에서 우승을 거두는 저력을 선보인 바 있다. 슈퍼6000 클래스는 국내 경주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와 파워(6200cc 425마력)를 가진 국내 유일의 스톡카 경주대회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인기가 높다. 특히 팀간 경쟁은 물론 타이어

브랜드간의 스펙슈타이어 기술력을 겨루는 격전장으로 유명하다.

한국타이어 모터스포츠팀 이인혁 팀장은 "글로벌 모터스포츠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력과 품질을 국내 최고 클래스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CJ슈퍼레이스 슈퍼6000 클래스를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한편 슈퍼레이스 개막전은 오는 4월 19일 강원도 인제스피드유메에서 펼쳐지며, 3번의 해외 경기와 1번의 한·중 모터스포츠 교류전, 1번의 나이트레이스 등을 포함해 올 시즌 총 8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bong82f

사이다 가격 8.3% 오른다

롯데칠성, 1년 6개월만에 14개 음료 인상

음료수 값이 줄줄이 오른다. 코카콜라에 이어 롯데칠성음료도 음료수 제품 가격을 올린다. 롯데칠성음료는 오는 10일부터 일부 음료제품 가

격을 평균 6.5% 인상한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 2012년 8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가격 조정 대상품목은 칠성사이다, 펄스콜라, 칸타타, 게토레이 등 총 14개 제품이다. 제품별 평균 인상률은 시장 1위인 칠성사이다가 8.3% 오르고 펄스콜라가 6.6% 인상한다. 또 칸타타 5.3%, 게토레이 5.2% 각각 오른다.

그러나 밀몬트, 트로피카나, 레쓰비, 아이시스 등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인건비, 물류비 등 비용 상승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판매관리비 급등을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serenon@donga.com 트위터@serenonw

가볍고 따뜻한 에코벨 기모반목폴로티 - 입는 순간따뜻~ 내몸에 착!

코오롱원사 기모안감 반목폴로티

에코벨의 원단은 울기보다 유연한 복유염의 스펀데, 노르웨이, 핀란드와 한국이 기술역으로 통해 생산된 원단으로 폴질(polypropylene)의 기능이 더해 원단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며 신축성이 좋고 보온 및 통풍성이 탁월합니다. 수분 흡수력이 좋아 항상 쾌적함을 유지시켜 주므로 스포츠, 등산, 낚시 및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당신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선물합니다. 또한 옷 맴돌기 방지 장미 및 캐주얼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기모반목폴로티입니다.

국내산100% 생산공장직영 (제품질 수입산과 비교거부!)

3장 49,800원

단재주 환경, 가격 절감가능, 화로고인화 가능합니다.

제품명 에코벨 기모반목폴로티 색상 와이, 그레이, 블랙, 네이비 사이즈 95, 100, 105, 110 특별가 3장 49,800원

주문전화 : 02-393-2783

농담: 302-0769-5857-11 예금주 이용은 (책배비 2,500원 소비부담)

www.ecobells.co.kr

김스 스포츠(Kim's sports) (중소기업 직영광고)

"티나"(Teena)

아름다운 女子

"린다"(Linda)

1999년에 창립하여 "리사" "티나" 2014년 신제품 "린다"로 출시되는 김스 스포츠의 공기인형 제품은 특수한 침단 신소재와 이중 구조로 두껍고 내구성이 탄탄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명 쇼핑몰에서도 판매되는 김스 스포츠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최신형 A/S 시스템을 도입하여 제품관리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정직한 신뢰로 고객들에게 인정받는 믿을 수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독신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티나"(Teena)와 신제품 "린다"(Linda)는 인터넷 화면으로 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주소창에 → http://김스스포츠.한국

제품문의 010-3500-5324 (02)423-0020

인체모형 예술인구 전문제작사
김스 스포츠(Kim's sports)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20926-증-32390

트루맨

남성의원

발기부전 보형물 삽입술 [평정형/굴곡형] 원터치 약물주입요법

✓ 귀두/음경확대 ✓ 조루/길기

✓ 바세린/만곡증 ✓ 남성지방흡입 (복부/여성형 유방)

✓ 포경/정관

신뢰할 수 있는 결과

합리적인 비용 임의 사항 및 일상생활 가능

남성수술

왕선리점 02-2297-9616
서울 성동구 도선동 48 라온빌딩 2층 (2호선/5호선 왕선리역 1번출구)

강남점 02-557-5518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1-32 BGF빌딩 5층 (2호선 선릉역 10번출구)

명동점 02-318-7571
서울 중구 남산동 121 1-2번지 평정빌딩 5층 (4호선 명동역 3번출구)

인천점 032-438-857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75 한상빌딩 8층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옆)

부천점 032-323-8575
부천시 원미구 상동 635-9 시그니타워 4층 (7호선 상동역 8번출구)

분당점 031-704-75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마전동 300-9번지 테크노빌딩 7층 (분당선 아현역 1번출구)

광주점 062-369-7532
광주광역시 서구 남성동 460-24 무등산타워 3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부산점 051-463-8576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8-31 뉴로빌딩 6층 (1호선 부산역 옆)

www.trueman75.co.kr

트루맨

대표번호 1577-5095